

진안, 저소득층 일자리 늘린다

향후 4년간 기초수급자 등 일자리 100개 창출

진안군(군수 이항로)이 기초수급자 등의 자활 지원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11일 군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활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4년간 일자리 100개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소의계층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는 인상을 주는 자활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자활근로의 명칭을 '내일희망일자리'로 변경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일희망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보수가 전년 대비 최대 27% 인상되어 일자리 참

여자의 소득보장과 자활지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 대상자를 근로능력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근로능력에 맞게 일자리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근로능력 있는 청년층에 대해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 상반기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청년포차·퓨전카페 등 시범사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 정식 사업단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 50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마지막으로 기존 6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인원을 현재 70명에서 향후 4년간 5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내일희망일자리에 참가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월부터 심층면접을 통해 적합한 사업단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항로 군수는 "진정한 복지는 단순히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진안군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노인,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대상자에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활·지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지원 사업 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장수군, '열린·소통행정' 군정 주민설명회 개최

장수군은 11일 산서면과 장수읍에서 '2019 군정 주민설명회'를 열고 민선 7기 2019년 주요군정에 대한 주민설명과 지역주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는 산서면, 장수읍 대표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장수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주민들에게 급근 군 시행 사업 및 읍면의 핵심 사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산서면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습답농지 개선,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정비, ▲산사~오수 간 버스 운행 폐지 대책, ▲농업을 지향수 개발 관정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장수읍민과의 대화에서는 ▲아파트 시설 정비, ▲농로 확포장, ▲도로 안전시설 설치, ▲돌레길 조성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영수 군수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 참여 및 군정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군정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알찬 시간이 되도록 준비했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필요로운 미래의 땅, 합천 장수'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2019 군정 설명회'는 12일 계남면·잠계면, 13일 천천면·계북면, 14일에는 번암면에서 개최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소득농업 실현 박차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지원 사업 추진 간담회

무주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무주군 관련 공무원들과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무주농협, 구천동농협, 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전라품목에 대한 수매(매취) 판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과 기타 농산물 판로개척,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민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과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선진화시스템이 속히 구축돼야 소득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라며 "농산물 판매·유통 전문가들이

함께 한 이 자리가 무주군농업을 발전시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1백억 원)은 △농협에서 전라품목을 수매(매취)할 때 생기는 손실을 보충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군에서 정해놓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데 쓰이며,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서 생기는 산지 폐기 농산물(가을배추)의 최저 생산비를 지원한다. 또 △각 마을 공동 수집장 조성사업도 추진할 방침으로, 무주군은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매일 농협에서 수거해 전국 주요 공판장 등에 납품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4일간 마을축제기획학교 열어

지난해 축제 평가·모색, 브랜드 강화 논의도 진행

진안군이 마을축제를 개최할 경험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4일간 '마을축제기획학교'를 연다. 지난달에 실시된 찾아가는 축제기획학교에 이어, 이번 마을축제기획학교는 각 마을의 축제 성향에 따라 심화과정과 브랜드육성과정으로 분리하여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심화과정은 전문문화마을축제를 개최하는 32개 마을이 대상이다. 각 마을별 3~5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지난해 마을축제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거울삼아 올해의 마을축제를 기획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15일에 진행되는 브랜드육성과정은 도농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브랜드육성마을축제를 개최하는 9개 마을이 대상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마을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마을축제기획학교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체계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했다. 또, 올해축제 공식 사진작가인 김진석 작가의 강연을 통해 마을축제를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마을축제가 세분화된 만큼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주민이 마을의 고유한 축제를 지속하고, 더 나아가 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보건의료원 방문건강관리 실시

장수군 보건의료원(원장 유봉옥)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을 파악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방문간호사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3,51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혈압, 당뇨 등 기본검진과 건강 상담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연중 실시하는 서비스이다. 이와 함께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정확한 용량과 용법 약물 복용, 식사습관, 꾸준한 운동 습관 등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폭넓은 건강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보건의료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내·외부 지원과 연계해 주민들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건강문제 진단과 연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은 물론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장수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350-2627)으로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6월 28일까지 신청... 휴경농지도 가능

장수군은 쌀 과잉 생산과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7억 1,060만원을 투입, 191ha를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조건은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수행한 농지 또는 변동작물금 수령 대상농지 및 재배작물이 확인되는 농지로,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농가 또는 벼 재배한 농업인이면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경농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 또는 법인인 신청할 수 있다. 단, 휴경농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벼 이외 어떤 작물도 심어도 무관하지만, 이행 점검 기간인 하반기(7월 1일~10월 31일)에는 반드시 휴경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조사료와 일반·쫄겨

름작물, 두류 등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타작물 수급 영향을 감안해 수급 조절 대상 품목인 배추와 무, 고추, 대파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평균 지원단가는 1ha당 340만원으로, 조사료 430만원, 일반·쫄겨 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이 각각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기 전환필지(2017년 전 환농지)의 경우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지원금 수령농지'를 신청 할 경우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완화된 참여조건과 인상된 지원단가로 인해서 쌀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